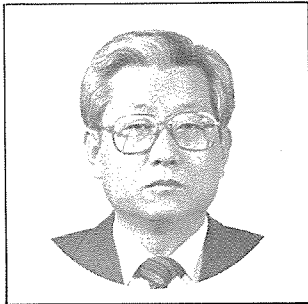


# 産學協同 강화되어야



李 茂 根  
(서울大 農大교수)

즉 우리나라 고유의 뿌리와 대목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였기 때문에 신기술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다 어떻게 접목하여야 하는지 항상 불안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개발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의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고 기술도 우리 것을 체계화하여 그 위에 신기술을 개발 적용하려는 과학기술진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입국은 일부 과학자나 기술자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는 없다 온 국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능력 함양,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많이 진출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교육은 가장 기초단계인 초중등학교의 과학 기술교육이 너무 약하다. 즉 초·중등학교에서 과학실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각종 실험결과 기자재, 그리고 기술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습실과 실습기자재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 이런 실정에서 우수한 과학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로지도가 어렵고 또한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사이에 기술문명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 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투자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제한된 투자범위 내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산학협동의 강화이다. 산학협동은 크게 교육과 연구·개발의 관점에서만 다소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극히 미진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감한 진흥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것을 낮추어 보고 외제상품이면 무조건 선호하는 국민들의 주체 의식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또 다소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우리 것을 애용하고 더 개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기업가는 국민들의 이런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여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는데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그동안 많은 발전도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오고 있다. 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우리나라 나름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둘째로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교육이 불충실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산학협동체제가 미흡하며,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기술사회에 적응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약하고 우리 기술을 아끼고 키우며 우리 스스로 개발하려는 국민적 공감체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외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런데 그 기술을 도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동안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